

NPC, 에틸렌 190만톤 크래커 건설

PE 30만톤에 PP 30만톤도 ... Sabic도 에틸렌 130만톤 플랜트 투자

이란의 National Petrochemical이 No.12 Olefi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Bandar Assaluyeh에 에틸렌(Ethylene) 190만톤 크래커를 건설할 계획이다.

다운스트림 플랜트의 생산능력은 HD/LLDPE(High-Density/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30만톤, PP(Polypropylene) 30만톤, MEG(Monoethylene Glycol) 66만톤, DEG(Diethylene Glycol) 7만톤, Benzene 38만 8000톤, Toluene 19만6000톤, Mixed Xylene 12만8000톤, Butadiene 27만7000톤이다.

NPC는 인디아의 Indian Oil과도 합작으로 이란 또는 인디아에서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사는 IOC가 합작으로 이란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가스 크래커 프로젝트는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사우디 Sabic은 20억달러를 투자해 Yanbu에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건설할 계획이다.

생산능력은 에틸렌 130만톤을 비롯해 PE 80만톤, PP 35만톤, EG 70만톤으로 에틸렌 생산능력이 100만톤을 넘어 세계 최대규모이다.

크래커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Amec, ABB Lummus Global, Bechtel, Fluor, Foster Wheeler, Parsons, Jacobs Engineering 등이 경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05>